

고려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變相畫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yunsangwha of a set of 7 volumes of
Saddharmapundarika-sutra of Koryo Script

권 희 경(Kwon, Hi-Ky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결 론 |
| 2. 고려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변상화의 내용분석 | <參考文獻> |

< 초 록 >

高麗寫經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중에서 각 권마다 변상화가 있는 것으로 결본 없거나 혹은 1권에서 많게는 3권까지 결본이 있기는 해도 년대가 확실하여 고려사경의 변상화연구는 물론 고려사경의 편년연구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경이 8절이나 된다. 이들은 전부가 忠肅王代 이후의 작품들이라는 년대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일본에 유존되고 있어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4절의 사경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4절의 사경을 분석해 본 결과 향우의 내용은 각권에 따라 조금씩 그림의 내용이 틀리기는 하나, 향우는 기본적으로 설법도의 틀 속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었으며, 향좌의 내용은 아주 복잡하게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권에 수록된 各品の 내용 중에서 『妙法蓮華經』의 가르침을 가장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설화적 내용을 선택하여 情景의으로 그렸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게 그려진 부분이라도 『妙法蓮華經』의 廣宣流布가 얼마나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교훈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어: 사경, 묘법연화경, 변상화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부 예술학전공 교수(hkkon@hanmail.net)

접수일: 2004년 6월 1일 최초심사일: 2004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ABSTRACT>

There is Byunsangwha(Buddhist's preaching paint) on each volume in a set of 7 volumes of Saddharmapundarika sutra of Koryo script. Though lacked volumes(from one to three volumes) were found in some sets, because of their certain manufactured era they are very important for the study of a chronicle of Koryo script. Until now 8 sets of them are known to be manufactured after king Chungshuk.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4 sets of script in Japan which are very difficult to see were studied. B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4 sets of script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at though the contents of left side of painting were different little by little according to each manufacture a era, it would be basically contained in the formality of the painting of Buddhist sermon, but though the contents of right side of painting were drawn very complicatedly, it can be known that in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in every volume, a fable content that can explain most clearly the teaching of Saddharmapundarika-sutra was selected and drawn as a paint of explaining fable.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know that even smallest part of painting becomes a instructively and easily explainable scene for how difficult and valuable is the preaching widely the Saddharmapundarika-sutra

Keywords: Script, Saddharmapundarika-sutra, Byunsangwha(變相畫)

1. 緒 論

高麗寫經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중에서 결본 없이 각 권마다 변상화가 있는 것으로 년대가 확실한 사경도 여러 질 유존되고 있다. 이들 사경은 발원문에 의해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어, 變相畫研究 뿐만 아니라 고려사경의 편년연구에도 중요한 작품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각권마다 변상화가 있는 작품 중에서 현재까지 발견 된 것으로서 가장 년대가 올라가는 것은 發願文에 의해 忠肅王 2년(1315)에 제작 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 日本 金澤 大乘寺에 제1권, 日本 松江 天倫寺에 제4·5·6·7권이 소장되어 있는 『妙法蓮華經』 7권본 1부¹⁾(이후부터 金澤의 大乘寺 소장본을 칭할 때는 大乘寺本, 松江의 天倫寺 소장본을 칭할 때는 天倫寺本이라고 칭한다.)이다. 그 다음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 소장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²⁾(이후부터 羽賀寺本이라고 칭한다)를 들 수 있으며, 忠惠王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소장으로 현재 日本 佐賀縣立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妙法蓮華經』 7권본 1부³⁾(이후부터 鍋島家本이라 칭한다),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인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⁴⁾(이후부터 根津美術館本이라 칭한다.)가 있다.

이들 외에도 이러한 양식의 高麗寫經은 발원문에 의해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위의 4질 외에도 禰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소장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⁵⁾, 그리고 제7권의 발원문을 통해 우왕 11년(1385)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국립박물관소장의 『妙法蓮華經』 7권본 4권도 빠뜨릴 수 없는 작품들이다.⁶⁾

1)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서울:미진사, 1986,) p.402-406.

2) 상계서, p.410-414.

3) 상계서, p.425-429.

4) 상계서, p.434.

5) 상계서, p.441-442.

6) 權熹耕,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4집, (2002, 12), p37의 각주 참조.

이들 4권의 사경은 제7권을 제외한 3권에는 발원문이 없어 이들 작품이 과연 제7권과 한 질인지

고려시대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來蘇寺소장으로 國立全州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⁷⁾와 세종 4년(1422)에 제작된 廣德寺本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도 빼 놓을 수 없다.⁸⁾

이들 8질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變相畫研究는 高麗寫經의 變相畫研究는 물론, 高麗寫經의 編年研究에 중요한 자료라 아니 할 수 없다. 먼저 제1권부터 제7권까지를 년대별로 나열하여 내용분석을 한 후, 양식분석을 통해 편년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러기에는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먼저 일본에 유존되고 있는 4질의 사경인 忠肅王代에 제작된 2질의 사경인 大乘寺本 및 天倫寺本, 羽賀寺本, 忠惠王代の 鍋島家本, 그리고 恭愍王代の 根津美術官本の 내용 분석부터 시작 하고자 한다.

2. 고려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변상화의 내용분석

각 권마다 변상화가 있는 忠肅王代の 2질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보다 먼저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로서는 南溪院石塔에서 출토 된 忠烈王 9년(1283)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⁹⁾ 廉丞益 발원의 卷子本이 있고, 忠烈王 20년(1294)

아닌지 의문이 없지 않으나, 표지화와 변상화의 양식에 의해서도 한 질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덕수궁 소장의 작품들로서 작품에 부착된 제2권의 덕 2467, 제3권의 덕 2468, 제5권의 덕 2469, 그리고 제7권에 2470이라고 붙여진 번호로서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7) 상계서,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p.444.

8) 상계서,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 p.41의 각주 참조.

문명대·박도화 「廣德寺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研究」 『佛教美術研究』 (東國大學校 佛教美術文化財研究所, 1995. 1), p.7-12.

제1권과 7권은 국립중앙박물관, 제2권 제4권, 제5권, 제6권은 이들 사경은 동국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제1권은 마곡사본이라 하고, 제2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은 廣德寺本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제1권은 마곡사에 보관되어 전해져 내려왔으며, 제2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까지는 廣德寺가 보관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9) 權熹耕, 「寫經院과 廉丞益 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3권 제1호, (2003. 3), p.12-14.

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¹⁰⁾가 있다. 그러나 이들 寫經變相畫는 변상화의 체제에 있어 忠肅王代의 작품과는 완전히 틀린다.

먼저 廉丞益 발원의 사경은 제1권의 표지화와 변상이 전면과 후면으로 배접되어 있는 형상인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만을 겨우 떼어 내었을 뿐, 나머지는 아직도 복원수리를 못하고 있다. 제1권에서 떼어낸 변상은 신장상이 크게 그려져 있어, 고려 국왕발원 사경의 變相樣式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忠烈王 20년(1294)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양면으로 사경을 하였는데, 제7권의 뒷면에는 『佛說阿彌陀經』을 사경하고 있으며, 변상화도 제1권과 제7권 뒷면에 사경된 『佛說阿彌陀經』의 첫머리에만 그려져 있다. 제1권의 변상화는 4페이지에 걸쳐 변상화가 그려지고 있는데, 제1페이지에는 神將像이 그려져 있으며, 3페이지에 걸쳐 석가 설법도가 그려져 있다. 『佛說阿彌陀經』의 變相畫는 2페이지에 걸쳐 여래설법도 중에서 聖衆만이 그려져 있다. 이에 비해 忠肅王 이후 각 권마다 변상화가 있는 것은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忠烈王代에 그려진 變相畫와는 달리 神將像들이 사라진다. 4페이지에 걸쳐 변상이 그려지는데, 향우에는 석가설법도가 그려지고 向左에는 『妙法蓮華經』의 내용 중에서 說話的이고 傳說的인 내용들이 아주 情景的으로 그려지는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忠肅王代에 4페이지에 걸쳐 그려지는 이와 같은 變相畫는 시대에 따라 양식적으로는 말 할 것도 없고 내용면에서도 조금씩 틀리게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먼저 변상화의 내용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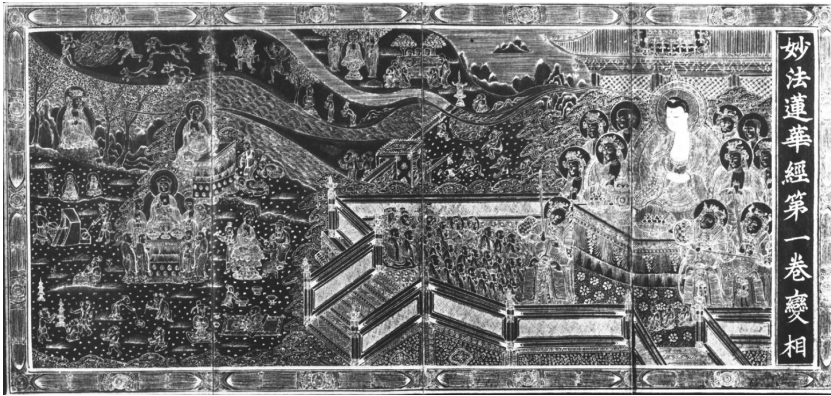
(1) 제1권 변상화 내용

가)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金澤 大乘寺 所藏本

大乘寺本의 경우, 전각을 뒤로하고 권속들에 둘러싸여 있는 좌상의 여래가 寶卓 앞에 두고 있으며, 여래를 향해 많은 聖衆들이 앉아 설법을 듣고 있다. 聖衆은 제2페이

10) 상계서, 『高麗寫經의 研究』, p.393.

11) 상계서, 「寫經院과 廉丞益 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p.7 및 p.9-11.



지의 3분지 1까지 그려지고, 수미단은 거의 제3페이지의 중간까지 그려지고 있다.

여래의 뒤쪽에 그려진 전각 옆으로 金泥橫線으로 표현되어 있는 공간의 한가운데는 산이 보이며, 그 아래쪽으로도 산이 보인다. 산은 수미산일 것이다.

여래의 계주로부터 퍼져 나간 빛은 4페이지 상부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序品」 중에 「佛의 미간으로부터 나온 빛이 동방 1만 8천세계를 비춘다」¹²⁾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백호는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제1의 光明에는 「序品」 중에 「여래가 涅槃에 든 후, 그 佛의 사리로써 七寶塔을 일으킨다」¹³⁾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향우로부터 산이 그려지고, 이어서 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은 인물과 탑이 그려지며, 그 다음에는 석가 열반상과 열반한 불의 침상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과 이들 보다 크게 그려진 미륵보살이 보인다. 열반상의 뒤쪽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보리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의 光明에는 「미간으로부터 나온 광명은 동방으로 1만 8천세계를 멀리 비추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하늘까지 다다르며, 육도중생의 생사와 선악의業緣과 좋고 추한 것의 보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볼 수 있으니 (하략)」¹⁴⁾라는 대목

12) 爾時, 佛, 放眉間白毫相光, 照東方萬八千世界, 靡不周偏.

13) 復見諸佛, 般涅槃者, 復見諸佛, 般涅槃後, 以佛舍利, 起七寶塔.

14) 眉間光明, 照于東方萬八千土, 皆如金色, 從阿鼻獄上至有頂, 諸世界中六道衆生, 生死所趣, 善惡業緣, 受報好醜, 於此悉見

을 그린 것으로 向左로 향한 빛의 줄기에는 육도중생이 그려져 있다. 향좌로부터 보리수나무 아래 정좌하고 있는 여래, 그 앞으로 2軀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천상도와 인간도를 그린 것이고, 보리수나무를 중심으로 향좌에는 鬼神圖가 그려져 있는데, 阿修羅를 중심으로 양쪽에 2軀는 餓鬼이다. 阿修羅圖의 향좌에는 사자, 소, 여우 등의 畜生圖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옆으로 화염 속에 인간이 들어 있고, 소와 인간이 막대기로 화염 속의 인간을 누르고 있어, 지옥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의 光明과 제2의 光明 사이에 횡선으로 메운 긴 曲線描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제1·제2의 光明 사이를 구획 짓기 위한 하나의 區劃面이라고 생각된다. 이 구획면의 횡선 향우에는 아래로부터 이어진 화염이 그려져 있다.

제3의 光明은 「序品」 중에 「또 보니 어떤 보살이 숲 속에서 광명 내어, 지옥고통 제도하여 불도에 들게 하며」¹⁵⁾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향좌 나무아래 앉은 보살의 머리로부터 나온 빛이 향우의 수미단 밖 담장 속을 비추고 있는데, 수미단의 담장 바깥에는 2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고, 담장 안에는 널을 쓴 3구의 인물과 목이 매달려 고통 하는 인물, 악귀의 형틀에 머리가 잘린 인물 등이 그려져 있다. 고통당하는 인물들 위로 화염이 그려져 있다. 이 화염의 위부분의 일부가 상술한 區劃面까지 그려지고 있다.

보살의 머리로부터 나온 광명의 상하에는 영취산으로 가득 메운 曲線描가 그려지고 있다. 석가 수미단의 향우에는 地雲으로 가득 차 있고, 광명을 내고 있는 보살상 아래쪽은 전체적으로 산화가 바탕화면을 이루고 있다. 이는 「序品」의 「이때 하늘로부터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을 내리어 대중들에게 흩으며, 넓은 佛의 세계가 여섯가지로 진동하였다」¹⁶⁾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향우에는 보타를 앞에 두고 연화좌 위에 앉은 여래가 측면향으로 그려져 있고, 여래를 향해 예불하는 2軀의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보타 옆으로는 1軀의 천신상이 그려져 있다. 보타 위에는 향로가 놓여 있다.

15) 又見菩薩, 處林放光, 濟地獄苦, 令入佛道.

16) 是時天雨, 曼陀羅華・摩訶曼陀羅華・曼殊沙華・摩訶曼殊沙華, 而散佛上, 及諸大衆, 普佛世界六種震動.

또한 광명을 내고 있는 보살의 아래쪽으로는 「方便品」의 내용 중에 「世尊은 중생에게 知見을 보이려는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佛의 知見의 도에 들게 하려는 연고로 세상에 출현 한다 (하략)」¹⁷⁾는 내용을 그린 탄생불이 보이고, 향우에는 2軀의 여래가 그려져 있다.

이 탄생불과 2구의 여래가 그려진 아래쪽에는 「方便品」의 「불상을 조각한 사람들도 성불도 했고, 혹은 칠보나 놋쇠나 백동들과 납 주석 쇳덩이나 나무, 진흙으로 불상을 제작했거나 교칠포로 불상을 장엄한 사람들도 모두가 성불도 했다」¹⁸⁾의 내용의 불상제작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려져 있다. 화덕 앞 의자에 앉아 있는 1구의 인물은 화덕에서 쇳붙이를 끄집어내고 있고, 그 맞은편에 1구의 인물은 단야의 고된 일을 하다가 이마에 땀을 닦고 있어, 불상제작에 필요한 쇳붙이를 만들어도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 향우에는 가운데 향로가 있으며, 그 양 옆으로 供養盥이 얹혀 있는 보탁을 앞에 놓고, 僧形의 협시를 거느린 如來坐像이 그려져 있고, 이 삼존 아래쪽 좌우로는 합장을 한 인물이 각각 2구씩 그려져 있다. 또한 향우에는 붓을 든 1구의 인물이 여래상을 향하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진 것을 볼 때, 이는 전체적으로 개금을 마친 삼존불을 향해 사부대중들이 예불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향우에도 1구의 인물이 의자에 앉아 여래상에 개금을 하고 있고, 그 옆으로 관을 쓴 1구의 인물이 합장을 하고 있어, 그가 시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래에게 개금하는 장면의 아래에 해당하는 제3페이지의 맨 아래쪽에는 「方便品」의 「백복으로 장엄한 부처님 상 그릴 적에 본인이 행하거나 남을 시키거나 모두 이미 성불 했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초목 혹은 필로서 혹은 꼬챙이로 佛을 그린 사람들도 점점 공덕이 쌓여 모두 성불도 하였나니」¹⁹⁾ 라는 내용이 그려져 있

17) 舍利佛, 云何名諸佛世尊, 唯以一大事因緣, 故出現於世, 諸佛世尊, 欲令衆生, 開佛知見, 使得清淨故出現於世, 欲示 衆生佛之知見, 故出現於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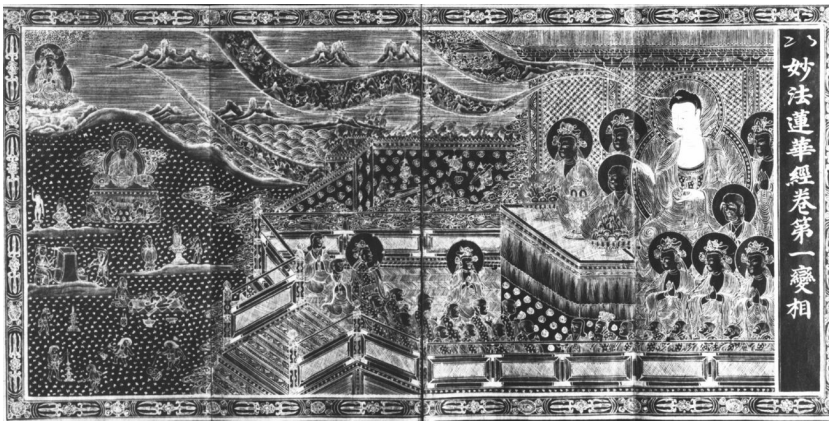
18) 若人爲佛 故建立諸形象, 刻雕成衆相 皆已成佛道, 或以七寶成, 鎗鈿赤白銅, 白鐵及錫鉛, 木及與泥, 或以膠漆布, 嚴飾作佛像, 如是諸人等 皆已成佛道.

19) 彩畫佛像 百福莊嚴相, 自作若使人, 皆以成佛道, 乃至童子戲, 若草木及筆, 或以指爪而畫, 作不祥, 如是諸人等 漸漸積功德, 具是大悲心, 皆以成佛道.

다. 물감그릇과 물감을 개는 인물과 불화를 그리는 畫師가 그려져 있고, 畫師 앞에는 관을 쓴 인물이 팔짱을 끼고 자리위에 앉아 있다. 남을 시켜서 불화를 그려도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그 向左인 제4페이지 아래쪽에는 경전의 내용대로 아이와 관을 쓴 인물이 붓 혹은 꼬챙이로 불화를 그리고 있다.

4페이지 아래쪽 향좌 구석에는 「方便品」의 「만약 어떤 사람이 탑과 불상, 불화에 꽃과 촛과 幡蓋로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공양하면 (중략) 모두 성불을 얻으리라」²⁰⁾라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2동의 탑과 이들 탑을 경배하는 인물, 탑을 장식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나)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小浜 羽賀寺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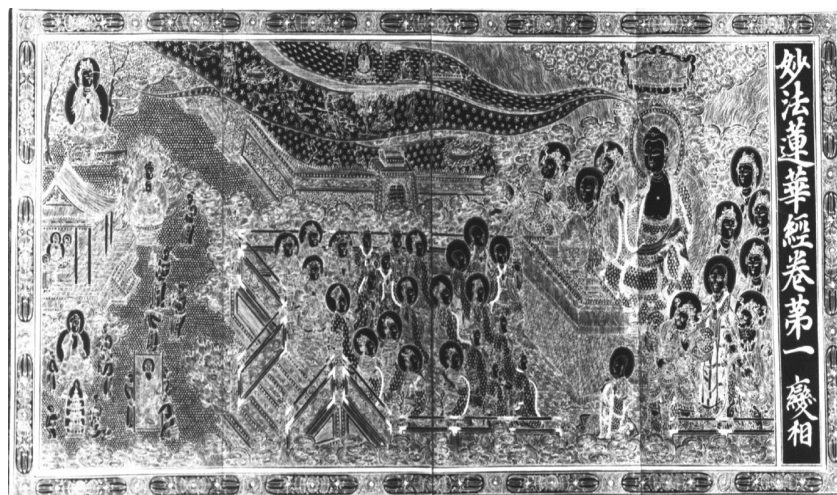
日本 羽賀寺本은 日本 金澤 大乘寺本보다 10년 후에 제작된 작품으로 변상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大乘寺本에서는 석가권속도 뒤에 윗부분에 서만 전각이 그려진데 비해 羽賀寺本은 전각의 모습이 더 많이 들어 나고 있다.

향좌의 내용 역시 大乘寺本과 거의 같다. 다만 側面向으로 그려지던 여래좌상과 여래를 향해 예불하는 2軀의 인물과 보타 옆에 1軀의 천신상이 생략되고 있으며,

20) 若人於塔廟, 寶像及畫像, 以華香幡蓋, 敬心供養, (중략) 皆以成佛道.

전체적으로 「方便品」의 佛像制作과 佛畫制作의 공덕에 관한 내용이 소략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忠惠王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所藏本



鍋島家本에 이르면 설법도에 있어서 釋迦眷屬은 앞 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석가권속의 배경으로 나타나던 전각이 사라지게 된다. 전각이 그려지던 부분에는 地雲紋과 螺線集線紋으로 채워지고, 석가의 위쪽으로 寶蓋가 그려지며, 보개 양옆은 보리수 잎으로 가득 채워진다.

석가의 미간으로부터 나온 광명은 忠肅王代의 2질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와 같다. 그러나 광명 속에 그려진 내용은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 면에서도 훨씬 간략해 진다. 석가의 계주로부터 나온 광명 아래쪽으로도 긴 담장과 솟을 대문을 그려 「序品」의 내용을 따로 구획 짓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그린 것도 틀리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제1의 광명 속에는 산과 탑, 이를 향해 무릎 꿇고 앉은 인물들은 생략되고 석가 열반상과 2구의 인물이 그려지고 있다. 그 옆으로 두 그루의 보리수 가운데 연화

좌 위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여래가 그려져 있을 뿐이다.

제2의 광명 속에는 두 그루의 보리수 가운데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인물은 아직 성도하기 전의 樹下思惟像이다. 그 옆으로 六道衆生은 귀신들과 축생들이 그려진다. 大乘寺本에 비하면 현저히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의 광명은 大乘寺本이나 羽賀寺本과 마찬가지로 향좌의 맨 위쪽 구석에 그려진 두 그루의 나무사이의 연화좌 위에 結跏趺坐한 보살의 미간으로부터 나온 빛이다. 이 빛 속의 향좌에는 3구의 인물이 그려지고 향우에는 불꽃에 휩싸인 그릇이 그려져 있다. 이 火盤은 불의 지옥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광명을 내고 있는 보살 아래쪽에는 忠肅王代는 보이지 않던 전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序品」의 「천만억 가지가지 栴檀으로 지은 집과 여러 가지 묘한 침구 부처님과 스님께 보시하고」²¹⁾를 그린 것으로 전각 안에는 보탁을 앞에 둔 삼존상이 그려져 있다. 여래 양옆의 협시는 보살이 아니라 승려인 듯이 보인다. 전각 밖에도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여래가 그려져 있고, 그 앞으로 여래에 대해 합장하고 예불하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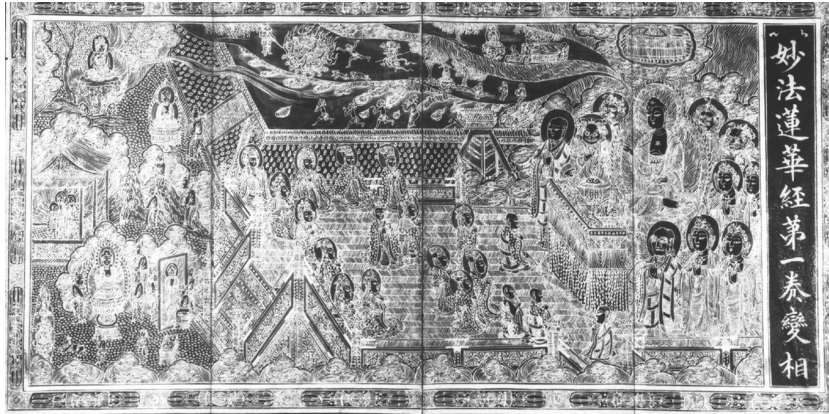
전각의 계단 아래로 「方便品」의 偈頌 중에 「(전략)만약 사람을 시켜 작곡을 하고, 북 치고 소라 불며, 소저 통소 거문고 요령 바라와 묘한 음악 정성으로 공양하며 혹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불의 덕을 노래하거나, (佛을 위한)하나의 작은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불하리라」²²⁾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전각 아래쪽으로 불상을 개금하는 장면과 불화를 그려 일으켜 세우고 있는 3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4페이지 구석에는 탑과 탑을 경배하는 3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21) 千萬億種栴檀寶舍, 衆妙臥具, 施佛及僧,

22) 若使人作樂, 擊鼓吹角具, 簫笛琴箏篳篥琵琶鐃銅鈸, 如是衆妙音, 皆持以供養, 或以歡喜心歌唄, 頌佛德乃至一小音, 皆已成佛道.

라)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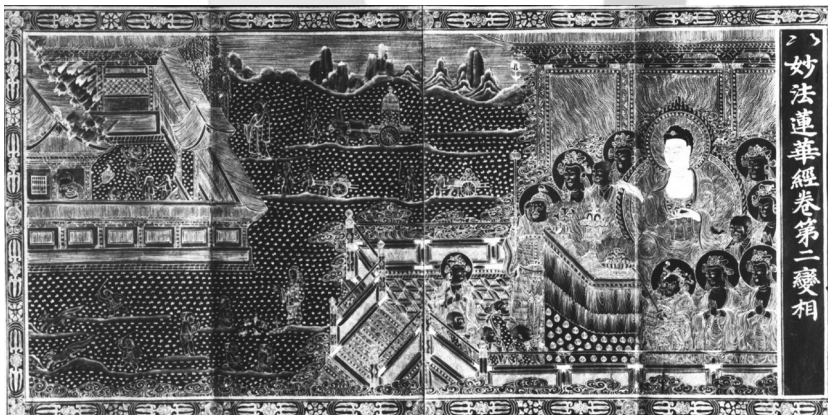


天倫寺本の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 제2권 변상화 내용

가) 天倫寺本은 제2권이 결본이다.

나)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所藏本



설법도의 석가 권속도 뒤로 전각이 보인다. 석가설법도의 수미단은 아래쪽으로는 3페이지 중간까지 그려지고 있다.

전각의 향좌에는 금니세선으로 횡선이 그어져 있으며, 중간 중간에 산이 그려져 있다.

향좌의 맨 구석 제4페이지에는 「譬喩品」 중에 「장자의 집이 낡아, 독충과 쥐가 들끓고 (중략) 맹렬한 불길에 싸여 타고 있어,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게 될 것을 걱정한 장자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羊車 鹿車 牛車 등을 만들고 탈것이 밖에 있으니 빨리 나와 가시도록 하라고 유인하여 아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²³⁾는 장자의 火宅이 그려져 있다. 악한 귀신 독한 벌레 화재까지 일었으니, 못 고통 끊임 없이 상속되고, 살모사 전갈 구반다 귀신과 여우와 개의 무리들이 들끓고 있다는 내용은 귀신과 독사로 나타내었다. 위험을 모르는 뛰놀고 있는 아이들도 집안에 그려져 있다. 문밖에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장자와 마차, 우차, 양차들과 고삐를 잡고 물이꾼들이 제2페이지 중간부터 제3페이지에 걸쳐 그려져 있다.

화택 아래쪽의 향좌에는 「譬喩品」의 偈頌 중에 경전을 읽고 쓰는 사람을 경멸하고 미워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로 「(진략) 경전을 찢뜯는 죄를 지어, 여우로 태어나서 마을로 들어가면 움과 나병에다 눈 하나까지 잃은 채로 어린애들에게 매를 맞고 온갖 고통 다 받다가 잘못하여 죽게 되고. (후략)」²⁴⁾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여우를 쫓는 아이를 그린 장면 이중으로 겹쳐서 그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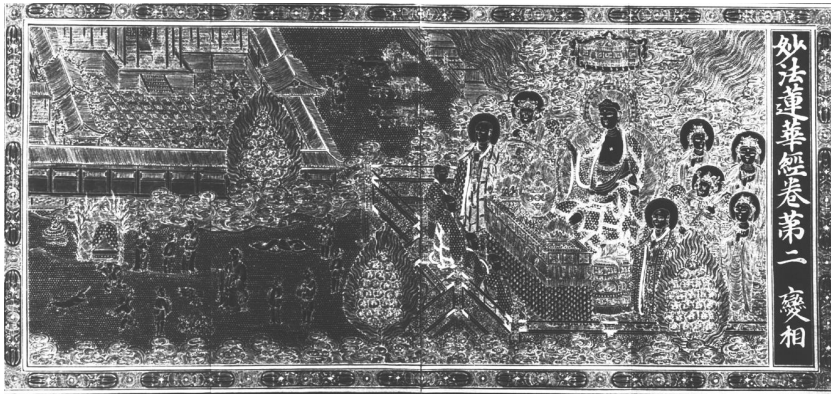
그 옆으로는 「信解品」의 「아비를 떠난 자식이 50년이 지난 후, 거지가 되어 돌아

23) 譬喩長者有一宅, 其宅久, 故, 而復頽弊,(중략) 惡獸毒蟲, 藏竄工穴, 毗舍闍鬼, 亦住其中,(중략) 其宅如是甚可怖畏, 毒害火災重難非一, 是時宅主在門外立, 聞有人言, 汝諸子等, 善因遊戲, 來入此宅, 雖小無知, 歡娛樂著, 長者聞已, 驚入火宅, 方宜救濟,(중략) 諸子無知 雖聞父誨, 猶故樂著, 嬉戲不已,(중략) 告諸子等, 我有種種珍玩之具妙寶好車, 囊車鹿車大牛之車, 今在門外, 汝等出來, 吾爲汝等 造作此車, 隨意所樂, 可以遊戲, 諸子聞說如此諸車, 卽時奔競, 馳走而出.

24) 謗斯經, 敲獲罪如是, 有作野干, 求入聚落, 身體疥癩, 又無一目, 爲諸童子之掃打, 擲受諸苦痛, 或是致死.

왔을 때 부자가 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놀라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썼다」²⁵⁾는 窮子와 富裕한 長老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장자와 무릎을 꿇은 3구의 인물과 함께 서 있는 1구의 인물을 그리고 있다. 관모를 쓴 인물이 조금 크게 그려진 것은 부자가 된 아버지인 부유한 長老이며,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는 인물이 거지가 되어 돌아 온 아들이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인물들은 부유한 長老의 시종들이다.

다) 忠惠王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所藏本



向右의 釋迦說法圖나 向左의 火宅의 장면은 羽賀寺本 것과 거의 같다. 다만 향우의 석가설법도가 羽賀寺本과는 틀리는 점이 있다면, 羽賀寺本은 뒤로 전각이 그려져 있으나, 이 鍋島家本은 여래 위쪽으로 보개가 그려져 있고, 그 좌우와 아래쪽에는 운문으로 가득 채워진 점을 들 수 있다.

이 寫經變相畫에서 눈에 두드러지게는 변화는 「譬喻品」 중에 「천인과 사람들이 치성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8방으로 뻗어나간 길은 황금으로 줄을 꼬아 드리웠으며, 그 길 곁에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 꽃과 열매가 무성하여. (하략)」²⁶⁾의 내용

25) 時賓窮子遊諸聚落 經歷國邑, 遂到其父所止之城, 父每念子 與子離別五十餘年,(중략) 自念老朽, 多有財物, 金銀珍寶, 倉庫盈溢, 無有子息, 一旦終歿, 財物散失無所委付, 是以慙慙, 每憶其子.

인 듯, 갑자기 화택의 담장과 수미단 아래쪽과 수미단의 계단 앞부분에 나무가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좌의 화택의 경우, 아래쪽이 운문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는 양식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모티브는 같다.

火宅에는 구렁이가 파리를 틀고 앉아 있는 점이라든가 火宅 아래쪽으로는 방망이를 들고 여우를 쫓는 아이, 돌을 들고 여우를 쫓는 아이들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忠肅王代의 변상내용들과 같다.

화택 아래쪽에도 뱀이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譬喻品」의 偈頌 중에 나타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뱀이 파리를 튼 옆으로 「信解品」의 부유한 長老의 설화가 그려져 있는데 「부유한 장자가 20년을 지내면서 아들에게 집안일을 보게 하고 금과 은과 진주, 파려 있는 창고를 보여주고, 모든 살림 맡아서 보게 하나, 아들은 문밖에 붙어 있는 초막에서 잠을 자며--」의 내용을 그린 듯, 대나무인지 싸리인지 분간키 어려운 나무들이나 있는 아취 문의 형태로 누옥을 표현하고 있다. 그 향우에 크게 그려진 2구 인물 사이에 작게 그려진 1구의 인물이 보인다. 크게 그려진 2구의 인물은 富有한 長老의 시자들이고, 작게 그려진 인물은 돌아온 아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그 향우에는 옆으로 길게 누운 1구 인물이 두 팔을 뻗어 위로 모으고 있다. 이는 일찍 집을 떠난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 와서 獅子座에 앉은 아버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외경심을 일으켜 도망가자 장자는 사람을 시켜 아들을 데려오게 했더니, 窮子인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붙들려 왔다고 기절해 버린 내용」²⁷⁾을 그린 것이다.

그 아래쪽으로 「信解品」의 偈頌 중에 「한량없는 의복들과(중략) 우두전단 좋은 향과 여러 가지 보배로서 塔廟를 일으키고 寶衣를 넓게 깔아」²⁸⁾라는 장면을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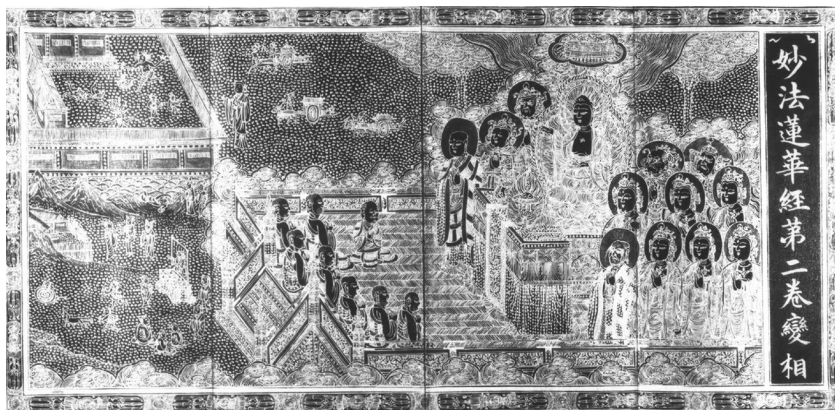
26) 天人熾盛, 琉璃爲地, 有八交道, 黃金爲繩, 以界其側, 其傍各有七寶行樹.

27) 窮子見父, 有大力藏, 卽懷恐怖, 悔來至此 (중략) 不如往至貧里, 肆力有地, 衣食易得, 若久住此, 或見逼迫 強使我作, 作是念已, 疾走而去, (중략) 卽見傍人, 急迫得還, 爾時使者, 疾走往促, 窮子經輓, 稱怨大喚, 我不相犯, 何爲見促, 使者執之逾急, 強牽將還, 于時窮子自念, 無罪而被囚執, 此泌頓死, 轉更惶怖, 悶絕躑地.

28) 又以美饌, 無量寶衣, (중략) 牛頭栴檀, 及諸珍寶, 伊起塔廟, 寶衣布地.

것으로 좌석에 앉은 부유한 長老와 이를 향해 합장을 하고 있는 아들이 그려져 있고, 이들 두 인물 사이에는 포개 놓은 나무토막들 위로 걸쳐진 옷가지들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는 진귀한 보물들이 그려져 있다.

라)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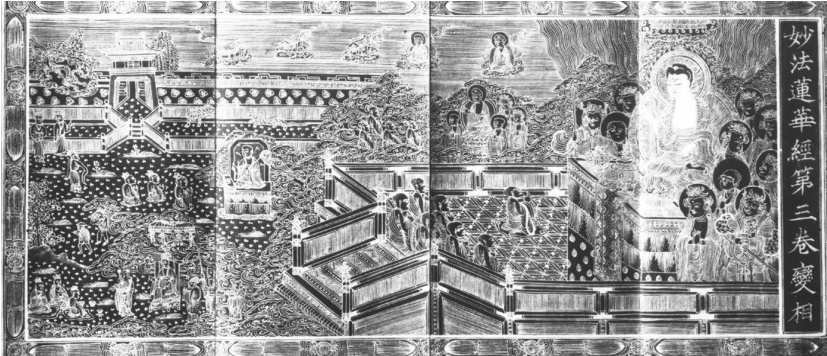


이 사경은 鍋島家本과 거의 같은 모티브로 그려져 있다.

鍋島家本과 틀리는 점은 火宅 바깥에 그려지던 파리를 튼 뱀이 화택 안에 그려져 있고, 화택담장 아래쪽은 산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특히 맨 아래쪽으로 그려진 산들에는 峻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수미단 아래쪽과 계단의 앞 화택의 담장에 나무가 그려진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향우의 아래쪽 「信解品」의 내용 중, 부유한 장로와 그의 侍子들을 그린 부분에서는 부유한 장로가 獅子座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탁을 앞에 놓고 뒤쪽에 방형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보탁 앞에는 많은 재화가 쌓여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貧寒한 아들의 陋屋도 담장까지 제대로 그리고 있다.

(3) 제3권 변상화 내용

가) 忠肅王 2년(1315) 에 제작된 天倫寺本



설법도의 경우, 성중은 제2페이지 중간까지 그려지고, 수미단은 제3페이지 중간이
상까지 그려진 점은 제2권과 같다. 다만 여래 뒤쪽의 배경에서 변화를 보인다.
「화성유품」 중 「시방의 각 5백만억 佛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그 나라 안
에 해도 달도 능히 비추지 못하던 어두운 곳을 두루 비치니,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
밝았느니라」²⁹⁾라는 내용의 쏟아지는 빛을 표현한 듯, 扇形으로 파상집선문으로 가
득 채우고 있다. 여래 위쪽 寶蓋 양옆으로는 비천이 그려져 있다. 또한 「藥草喻品」
의 「삼라만상에는 초목도 많고, 숲 속에는 약초도 많지만, 그 이름과 모양이 모두
다르니. 먹구름이 삼라만상을 덮고 일시에 비를 뿌리면 모든 식물들은 그 크기에
따라 비를 맞나니, 여래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나타남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저 큰 구름이 삼라만상을 두루 덮는 것과 같다」³⁰⁾라는 내용을 그린 듯, 설법
도 주변을 운문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수미단 맨 위쪽은 「化城喻品」 중 여래가 여러 비구들에게 설한 내용으로 「(전략)

29) 各五百萬億諸佛世界六種震動, 其國中間幽冥之處日月威光, 所不能照而皆大命(하락)

30) 三千大千世界, 山川溪谷土地, 所生卉木叢林所生, 及諸藥草, 種類若干, 名色各異, 密雲彌布, 遍覆三
千大千世界, 一時等澍, 其澤普洽.

범천왕들이 佛을 만나 장엄된 궁전을 바친다.(후략)³¹⁾ 내용은 그린 듯, 휘날리는 구름을 탄 2구의 여래와 구름 위에 얹혀 날러가고 있는 3동의 瓦家を 황선 처리된 배경 위에 나란히 그리고 있다.

그 아래로는 여래와 2구의 보살과 2구의 승려 등이 그려져 있고, 이들을 향해 앞은 4구의 인물도 그려져 있다. 이들이 운문 속에 그려진 것으로 보아 『藥草喻品』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하는 장면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변상의 향좌에는 『化城喻品』의 내용 중에서 「(전략) 5백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사나운 길에 날은 저물고 인적마저 끊겨, 무섭고 두려운 곳을 지나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을 가려 할 때, 그 地理를 잘 아는 한 導師가 있어, 무서워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3백유순을 지난 지점에서 하나의 城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즐겁게 가지도록 하면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음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자 안온하여 이미 체도 되었다고 생각하며 피로를 풀고 휴식하려 할 때, 도사는 다시 화성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깝다고 알리면서, 성은 그대들을 휴식케 하기 위해 만든 化城이니라.」³²⁾고 설한 내용의 化城이 그려져 있다. 성의 위쪽은 향우로부터 이어진 황선으로 처리되어 있고, 화성 바깥 쪽 향우의 담장 안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화성의 아래쪽 向右에는 化城을 만든 導師가 손에 持物을 들고, 등받이가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다. 導師 그가 바로 인간을 이끌어 가는 여래이고, 그를 향해 꿇어앉아 예를 드리는 3구의 인물은 도사가 설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부대중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도사의 설법을 듣고 있는 인물들 아래쪽으로 도롱이를 입은 인물이 나무가 보이는 동네를 향해 산길을 가고 있는데, 이는 화성 위쪽 향좌에 그려진 용과 관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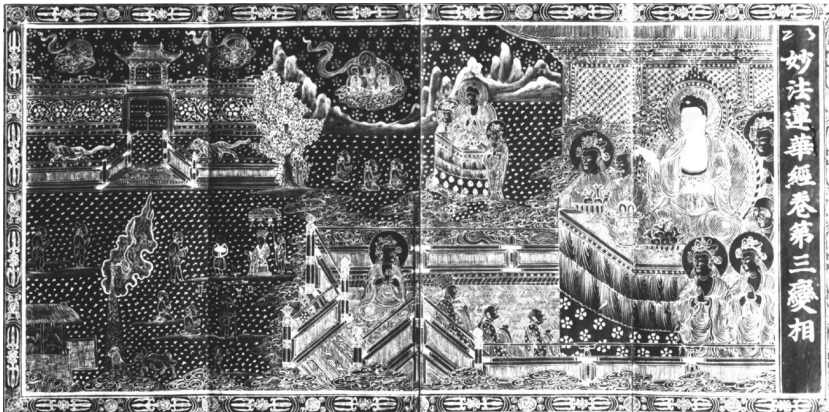
31) 各以宮殿, 奉上彼佛, 而作是言, 惟見哀愁, 饒益我等, 所獻宮殿, 願納處。

32) 譬如五百由旬, 險難惡道, 曠絕無人, 怖畏之有處, 若有多衆, 此道至珍寶處導, 有一導師, 聰慧明達, 善知險道, 通塞之相, 將導衆人, 欲過此難, 所將人衆, 中路懈退, 白導師言, 我等疲極, 而復怖畏, 不能復進, 前路猶遠, 今欲退還, 導師多諸方便, (중략) 過三百由旬, 化作一城. (중략) 是時疲極之衆, 心大歡喜, 嘆未曾有我等今者免斯惡道, 快得安隱, 於時衆人, 前入化城, 生已度想 生安隱想, (중략) 爾時導師, 知此人衆, 既得止息, 無復疲倦, 卽滅化城。

켜서 해석해야 한다.

그 아래쪽으로는 「授記品」의 偈頌 중에 大目犍連, 須菩提, 摩訶迦旃延이 합창하여 세존의 존안을 우러러 보며 사죄했다는 내용 중 「주린 배로 헤매다가 대왕의 성찬 만났어도 마음이 두려워서 감히 먹지 못하다가, 만일 왕이 먹으라면 그때야 敢食하듯, 너희들(大目犍連, 須菩提, 摩訶迦旃延) 성불한다는 佛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중략) 만일 수기 주신다면, 이제야 안락하리다.³³⁾」라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은 대왕이 그려져 있고, 대왕의 뒤편에는 일산을 받쳐 든 인물과 대왕의 앞쪽에는 무엇인가 잔뜩 담은 쟁반을 들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여자상의 그려져 있다. 대왕을 향해 예를 올리고 있는 3구 인물은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이들 앞에는 그릇 2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봐서 대왕의 명에 따라 감식하는 3성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小浜 羽賀寺所藏本



이 사경의 변상화의 說法圖는 聖衆 뒤로 세밀하게 표현된 전각의 일부가 보이는 점과 설법도의 가장자리에 운문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天倫寺本처럼 운문이 가장자

33) 如從飢國來, 忽遇大王鮮, 心猶懷疑懼, 未敢即便食, 若復得王教, 然後乃敢食, (중략) 言我等作佛, 心尙懷憂懼, 如未敢便食, 若蒙佛手記, 爾乃快安樂.

리를 가득 채워지게 그리지 않고 간략하게 그려진다는 점, 釋迦眷屬圖도 간략하게 그려지고 수미단에 앉아 설법을 듣는 聖衆도 간략하게 그려지는 점 등이 天倫寺本과는 완전히 틀리는 점이라 하겠다.

수미단 위쪽 전각이 그려진 옆 부분으로부터 化城이 그려진 윗부분까지 天倫寺本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들 공간은 화성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산으로 화면을 상하로 구분하며, 위쪽에는 화문이 그려지고, 아래쪽은 점묘로 처리하고 있다.

산의 위쪽에는 天倫寺本에서 보이는 구름을 탄 2구의 여래 대신 삼존상이 휘날려 가는 구름을 타고 있으며, 그 옆으로는 天倫寺本과 같은 모티브로 2체의 瓦家가 구름에 얹혀 날려가고 있다.

제4페이지 위쪽에 그려진 문이 활짝 열려 있는 化城도 天倫寺本과 다른 점이 있으니, 호랑이가 성의 담장 밖 양쪽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天倫寺本에서는 城안 향우의 담장 속에 그려져 있어 構成이 틀린다고 할 수 있다.

化城의 향좌의 산 아래쪽에는 보타를 앞에 두고 협시를 거느린 채 보좌 위에 앉은 여래삼존상과 이 삼존상을 향해 합장을 하고 앉아 있는 4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 天倫寺本의 5존과 4구의 인물이 그려진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授記品」의 大目犍連, 須菩提, 摩訶迦旃延의 수기장면이라는 설도 있다.³⁴⁾ 그러나 천륜사본에서 4구의 인물을 그린 것으로 볼 때, 이 장면이 과연 「授記品」의 三聖人의 수기 장면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天倫寺本에서 5존과 4구의 예불하는 인물이 운문 속에 그려져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天倫寺本과 마찬가지로 「藥草喻品」의 보살행의 가르침을 설하는 장면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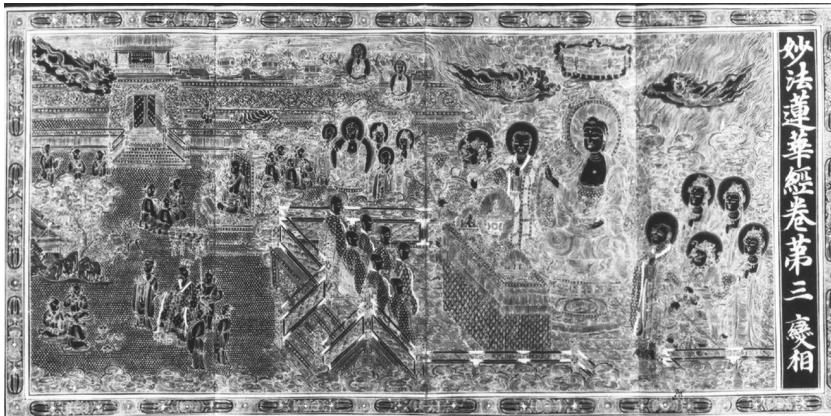
화성의 아래쪽에 오면 더욱 많은 변화를 보인다. 天倫寺本에서는 化城의 향좌에 그려져 있던 용이 화성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구름 속에 들어있는 형상으로 그려진 용은 입으로부터 비를 뿜어내고 있으며, 구름 속의 용 아래쪽에는 도롱이를 입은 농부가 비를 맞으며 소를 끌고 초옥으로 가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34) 문명대·박도화 「廣德寺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研究」, 『佛教美術研究』, (東國大學校 佛教美術文化財研究所, 1995. 1), p.15.

운문 속에 그려진 용의 향좌에는 「授記品」중에 대왕의 음식을 감식하는 장면은 天倫寺本과 거의 같은 「모티브」로 그려져 있다.

天倫寺本에서 보이던 화성을 만들어 사람들을 인도 한 導師와 導師를 향해 예불 하던 인물들이 생략되고 있다.

다) 忠惠王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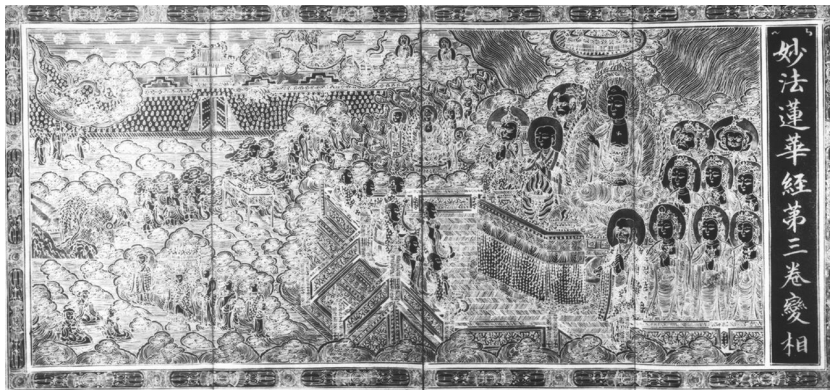


이 사경변상화는 설법도에 있어서 여래의 배후는 쏟아지는 빛을 표현한 듯, 扇形으로 퍼져나간 波狀集線紋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점과 보개 양쪽으로 비천이 그려진 점과 화성 앞쪽에 가옥과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나무가 그려진 점, 化城 앞쪽에 가옥과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무가 그려진 점을 제외 하면 천문사본과 거의 같은 모티브로 그려져 있다.

화성 위쪽도 횡선으로 채워져 있어 天倫寺本의 특징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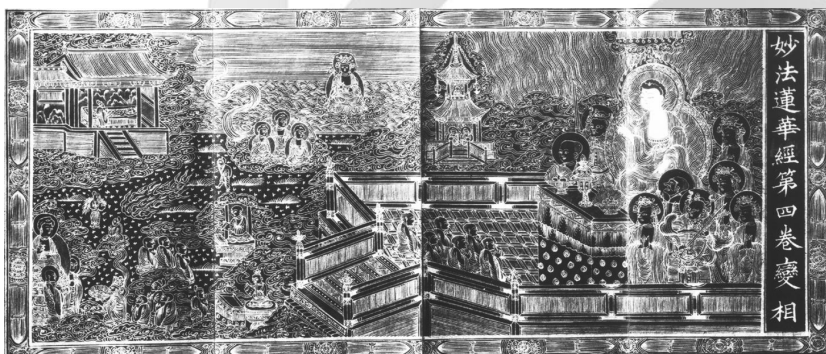
이 사경변상 역시 양식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변상의 내용 면에서는 天倫寺本에 거의 가깝다. 「藥草喻品」의 내용 중에서 위쪽에 용을 그리고



아래쪽에 도롱이를 입은 인물이 나무가 보이는 동네를 향해 산길을 가고 있는 내용이나, 「手記品」의 大目犍連, 須菩提, 摩訶迦旃延의 수기에 관한 내용은 鍋島家本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4) 제4권 변상화 내용

가)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松江 天倫寺 所藏本



향우의 說法圖는 제3권과 거의 같은 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사방으로 퍼져 나간 빛을 상징하는 파상집선문은 보다 넓게 그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래를 중심

으로 한 聖衆은 제2페이지 중간까지 그려져 있고, 수미단의 아래쪽은 제3페이지 절반까지 그려져 있다. 수미단은 운문으로 가득 차 있다.

여래를 중심으로 한 성중 옆으로 「見寶塔品」의 내용인 「佛의 앞에 七寶塔이 하나 있으니(중략) 이 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는데(중략) 世尊이 願力を 가지고 시방의 어느 곳에서나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 보배탑이 諸佛 앞에 솟아나서」³⁵⁾이라는 내용과 「다보불이 보탑 중에서 자리의 반을 석가모니 불에게 내주며 말하기를 석가모니불이 이 자리를 취하니--」³⁶⁾이라는 내용을 그린 듯, 초층에는 二佛竝坐像, 2층에는 여래가 그려진 탑이 있다.

이 보탑 옆으로는 「提婆達多品」중에 「천엽연화에 앉은 문수사리보살이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허공에 머물더니, 영취산 위로 내려오니」³⁷⁾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마치 파도 모양 같기도 하고, 작은 산이 연이어 있는 형상 같기도 한 영취산을 그려, 그 한 가운데 문수보살을 그리고 있다.

그 아래쪽 향좌에는 「見寶塔品」의 내용으로 다보여래의 보탑을 공양하기 위해 운집한 여래의 분신으로서의 十方의 諸佛을 나타내는 여래군상³⁸⁾을 그린 듯, 3구의 여래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구름에는 집선문으로 여러 번 굴절된 휘날림이 붙어 있다.

향좌의 맨 구석에는 「五百弟子受記品」의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가 만취되어 누웠는데, 그때 그 집의 주인은 외출하기 전, 자는 친구의 옷에 값을 해야될 수 없는 보배를 넣어 주었으나, 그 친구는 잠에서 깨어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보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작은 소득에 만족하며 살았다. 얼마 후, 집주인이 다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주며 이제 그 보물로 일상의 모든 것을 사도 모자람이 없을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³⁹⁾는 내용을 운문에 휩싸인 저택과

35) 釋迦牟尼世尊, 能以平等大慧教, 菩薩法佛所護念妙法蓮華經, 爲大衆說,(중략) 爾時佛前, 有七寶塔, (중략) 從地湧出 住在空中.

36) 爾時多寶佛, 於寶塔中, 分半座, 與釋迦牟尼佛, 而作是言, 釋迦牟尼佛可取此座, 釋迦牟尼佛入其塔, 坐其半座, 結跏趺坐.

37) 爾時文殊舍利, 坐千葉蓮華,(중략) 從於大海, 娑竭羅龍宮, 自然湧出. 主處空中, 語靈鷲山, 從蓮華下

38) 是多寶佛, 有心重願, 若我寶塔, 爲聽法華經, 故出於諸佛前時,(중략) 我分身諸佛, 在於十方世界.

그 저택 속에 그려져 있는 침상 위에 누워 있는 1구의 인물과 그 침상 곁에 서 있는 1구의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五百弟子受記品」의 저택 아래쪽에는 「見寶塔品」의 마지막 계승 부분에서 세존 멸도 후, 악한 세상에 태어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설한 내용으로 「가령 마른 풀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서도 몸이 타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여래멸도 후 이 경전(법화경) 지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이니.⁴⁰⁾」라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 타 오르는 화염을 가운데 두고 마른 풀을 어깨에 멘 1구의 인물과 손으로 화염을 가리키는 1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의 아래쪽에는 向左 구석으로 삼존이 그려져 있고, 이 삼존 앞으로 무엇인가 공물을 바치는 인물이 1구 그려져 있다. 이는 「提婆達多品」의 내용 중에서 畜生龍女の 성불 장면으로 용녀는 그녀의 성불은 믿을 수 없다는 智積菩薩과 舍利弗尊者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세존에게 보주를 바치며, 남자로 변해서 성불했다는 내용이다.⁴¹⁾ 석존 앞에 보주를 바치는 용녀, 그로부터 구름에 떠올라가서 성불한 용녀를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형으로 그려 異時同圖法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염 옆으로는 「法師品」의 「여래 멸도 후, 법화경을 쓰거나 받아 지니거나, 설법하거나 독송하며 공양하고, 타인을 위해 설법하는 것은 여래가 그의 옷으로 덮어주는 것과 같다.⁴²⁾」는 내용을 그린 듯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무엇인가 읽고 있는 僧侶形의 1구의 인물과 그를 향해 합장을 하고 설법을 듣고 있는 3구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그 아래쪽으로도 보탁을 앞에 두고 무엇인가 읽고 있는 1구 인물이 그려져 있는

39) 有人至親友家, 醉酒而臥, 是時親友官事當行, 以無價寶珠, 繫其衣裏, 舩之而去, 起已遊幸, 到於他國, 爲衣食, 故勲力求索 甚大艱難 若少有所得, 便以爲足, 於後親友會遇見之, 而作是言, 咄哉丈夫, 何爲衣食, 乃至如是, 我昔欲令汝得安樂, 五欲自恣(중략) 汝今可以此寶貿易, 所須如意, 無所乏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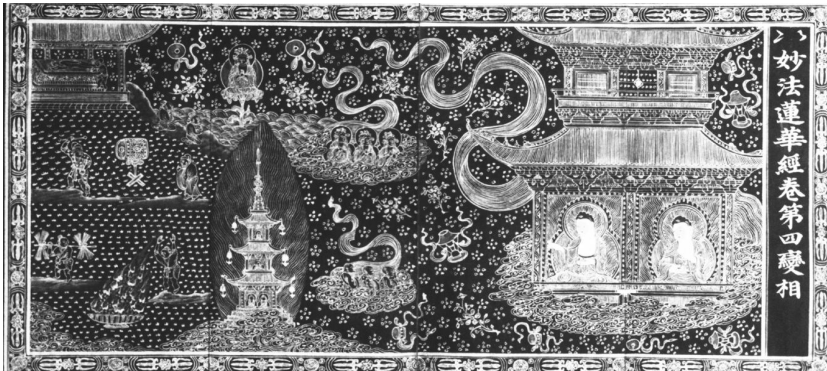
40) 若佛滅後, 於惡世中, (중략) 假使劫燒, 負擔乾草, 入中不燒, 亦未爲, 爲一人說, 是則爲難.

41) 爾時龍女有一寶珠, 價值三千大千世界, 持以上佛, 佛即愛之, 龍女爲地積菩薩, 尊者舍利佛言, 我獻寶珠, (중략) 龍女忽然之間, 變成男子, 具菩薩行, 卽往南方無垢世界, 坐寶蓮華成正覺.

42) 而此經者(法華經)(중략) 藥王, 如來滅後, 其能書持讀頌供養, 爲他人說者, 如來則爲以衣覆之.

데, 이는 「勸持品」의 내용인 「세존이여, 우리들이 여래멸도 후, 시방 세계를 두루 다니며 중생들에게, 법화경 경전을 쓰게 하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게 하며, 그 뜻을 해설하고 법과 같이 수행하면 佛의 위력으로 저세상에서도 지켜 주리니.」⁴³⁾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나)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所藏本



羽賀寺本은 같은 충숙왕대에 제작된 사경변상화이지만 그림의 배치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 『妙法蓮華經』의 사경 변상화 중에서 향우에 설법도가 그려지지 않고 이불병좌의 보탑이 그려진 경우는 바로 羽賀寺本の 제4·5권뿐이다.

향우에는 초층과 이층의 옥개석까지 나타난 보탑이 그려져 있는데, 이 보탑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래쪽에는 운문이 보탑을 받치고 있고, 보탑 초층 옥개 밑으로부터 집선문의 휘날림이 그려져 있다. 이는 상술한 「見寶塔品」의 내용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보탑 옆으로는 산화가 그려져 있는데, 상징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꽃모양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산화 중간 중간에는 줄기와 잎까지 그려진 꽃들과

43) 世尊, 我等於如來滅後, 周旋往返十方世界, 能令中生, 書寫此經(法華經), 受持讀誦, 解脫其義, 如法脩行 淨憶念, 是皆佛之威力, 普見十方, 遙見守護.

악기가 보인다. 이들 악기 역시 집선문으로 휘날림이 그려져 붙어 있다. 「法師品」의 내용 중, 「(상략) 이 탑에 일체의 꽃과 향, 영락, 일산, 당번, 기악 노래 등으로 공양 하고.(하략)」⁴⁴⁾를 표현한 것이다.

산화가 그려진 가운데 위쪽에 1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제바달다품」의 문수사보살이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영취산 위로 내려왔다는 내용이다.

그 아래쪽으로는 파도문 같기도 하고 산의 연속문 같기도 한 문양을 뒤로하고 운문을 타고 있는 3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도 운문을 타고 있는 3구의 여래가 그려져 있다. 이는 「見寶塔品」의 다보여래의 보탑을 공양해서 운집한 十方의 諸佛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운문을 탄 보살과 여래들의 향좌에 「견보탑품」 내용 중 여래가 大樂說菩薩摩訶薩에게 말한 내용으로 「多寶佛이 마음속깊이 소원이 있어, 만약 나의 보탑이 법화경을 들으려는 諸佛 앞에 내 몸으로써 그 존재를 四衆 앞에 나타날 때, 그 탑은 나의 몸이며, 사부대중이 여래의 分身佛로 나타나서 시방세계에 두루 있으니, 한 곳에 다 모인 연후에 내 몸이 출현할 뿐 이다. 대요설아 여러 나의 분신불이 시방세계에 있으니, 여러 설법자는 지금 이에 응해서 마땅히 모이리라.」⁴⁵⁾를 그린 것이다.

향좌 위쪽의 가장 구석자리에 그려진 사람이 누워 있는 건물은 「五百弟子受記品」의 친구의 보물에 관한 설화를 저택과 누워있는 1구의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건물 아래쪽 가운데 하나의 북이 그려지고 그 향좌에는 막 북을 내려치려는 인물이 1구 그려져 있으며, 향우에는 그 북에 함장을 한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 역시 「法師品」의 음악의 공양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

맨 아래쪽에는 마른풀을 장대 끝에 달아 어깨에 맨 인물과 맞은편에 두 팔을 벌리고 곧 불로 뛰어들려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見寶塔品」의 마지막 계송부분을 그린 것이다.

44) 此塔，應以一切華香瓔珞蓋幢幡伎樂歌頌，供養恭敬，尊重讚歌，若有人，得見此塔，禮拜供養，當知是等，皆近阿耨多羅三藐三菩提。

45) 多寶佛，有深重願，若我寶塔，爲聽法華經，故出於佛前時，其有欲以我身，示四衆者彼佛分身佛，在圖十方世界說法，盡丸集一處，然後我身乃出現耳，大樂說，我分身諸佛，在於十方，諸說法者，今應當集。

다) 忠惠王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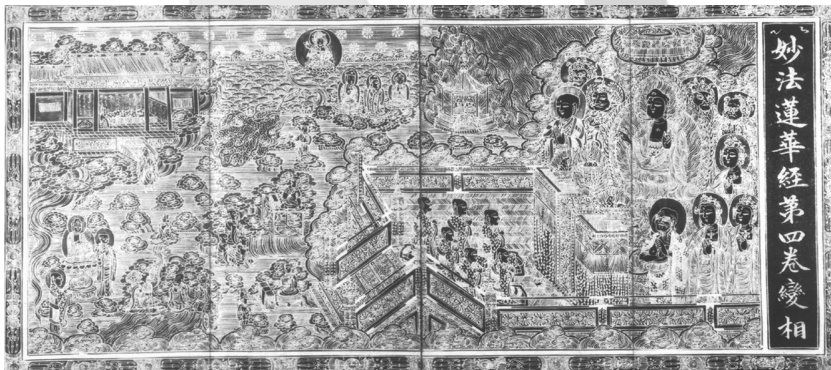


이 사경변상화는 향우에는 제3권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설법도가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계단에는 화문이 그려지고 있어, 이 시기에 이르면 벌써 이러한 양식이 상당히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向左에는 天倫寺本과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수보살 위쪽으로 天倫寺本에서 세선의 횡선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사경변상화에 이르면 화문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法師品」의 꽃공양에 대한 내용을 의식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그 아래쪽으로 천륜사본의 내용과 거의 같다.

라)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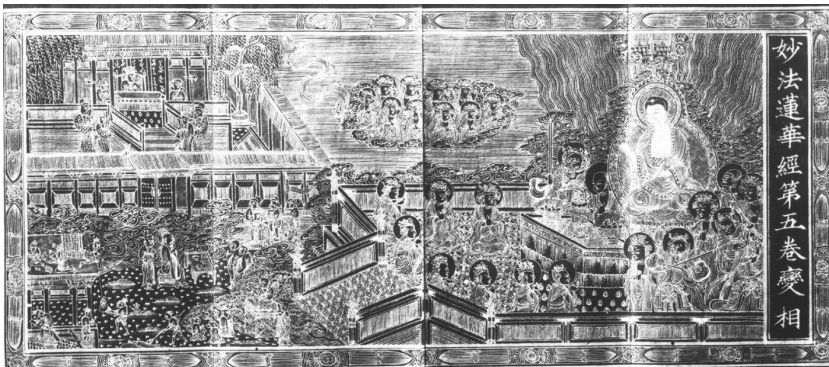


양식적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나, 내용 면에서는 鍋島家本과 거의 같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見寶塔品」의 마지막 계승부분의 마른 풀의 비유의 장면의 마른풀을 가진 인물은 「五百弟子受記品」의 저택의 계단에 붙여서 그려지고, 불은 더 위 쪽으로 떨어져 그려지고 있으며, 불로 뛰어 들려는 인물은 불쪽에 가까이 붙여서 그려져 있어, 이것이 「見寶塔品」의 마지막 계승부분의 마른 풀의 비유인지 어떤지 쉽게 알 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제5권 변상화 내용

가)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松江 天倫寺 所藏本



향우의 설법도는 제2, 3, 4권과 같은 양식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수미단으로 오르는 계단부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4권까지는 정확한 계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제5권에서는 사각자 속에 화문을 그려 넣고 있다.

수미단의 위쪽 횡선으로 처리된 바탕문양 위로 구름을 탄 일군의 보살군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 보살군의 뒤쪽으로는 集線紋의 휘날림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보살군이 공중에 떠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從地涌出品」의 「娑婆世界の 삼천대천의 국토는 땅이 모두 흔들려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부터 無量千萬億의 보살마하살이 동시에 융출된다.」⁴⁶⁾라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우 상단의 구석에는 「安樂行品」의 「무력이 강대한 轉輪聖王이 諸國을 정복해서, 功이 있는 兵에게는 코끼리나 말, 전차나 의복, 珍寶나 奴婢 등을 주지만 왕의 육계 중에 있는 明珠는 용이하게 주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결국 최고무훈의 勇者에게는 명주를 주었다.」⁴⁷⁾라는 髮中明珠의 비유를 그리고 있다. 크고 화려한 저택은 구석에 서 있는 버드나무에 일부가 가려져 있다. 건물 안에는 보탁을 앞에 두고 轉輪王이 앉아 있고, 그 양 옆으로는 여인과 남자가 서 있다. 보탁 아래 계단 옆 양쪽으로 각각 2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으나, 勇者는 그려져 있지 않다. 담장 밖 향우에는 말을 가운데 두고 3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1구의 인물은 말의 바깥쪽으로 2구의 인물은 말의 건너편에 그려져 있어, 겹쳐 그리기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말과 종자가 그려진 아래쪽에는 「如來水量品」의 「良醫가 국외에 여행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마셔悶苦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로 良藥을 주어서 본심을 잃지 않게 치료하고자 했으나, 이미 본심을 잃은 아들은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良醫는 방편으로서 일단 국외로 나가서 부리기 쉬운 사람들을 시켜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고하게 했을 때 본심을 다시 찾은 아들이 약을 마시고 나았기 때문에 양의가 귀국했다.」⁴⁸⁾내용으로. 보탁을 앞에 놓고 원형의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과 侍자가 그려져 있다. 그 맞은편에도 2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보탁 위에는 여러 가지 처방전과 약 항아리가 그려져 있다.

46) 佛說是時, 娑婆世界三千大千國土, 地皆震裂, 而於其中, 有無量千億菩薩摩訶薩 同時湧出.

47) 文殊舍利, 譬如強力轉輪聖王, 欲以威勢, 降伏諸國, 而諸小王, 不順其命, 時轉輪王, 起種種兵, 而往討伐, 王見兵中, 戰有功者, 則大歡喜, 隨功賞賜, 或與田宅聚落城邑, 或與衣服嚴身之具, 或與種種珍寶金銀琉璃磚磲瑪瑙珊瑚琥珀, 象馬車乘, 奴婢人民, 唯繫中明珠, 不以與之, 所以者何, 獨王頂上, 有此一珠, 若以與之, 王諸眷屬, 必大驚怪, (중략) 文殊舍利, 如轉輪王, 見諸兵中, 有大功者, 心甚歡喜, 以此難信之珠, 久在繫中, 不忘與人, 而今與之.

48) 譬如良醫, 智慧聰達, 明鍊方藥, 善治重病, (중략) 諸子於後, 飲他毒藥, 藥發悶亂, 是時其父, 還來歸家, 諸子陰毒或失本心或不失者, 遙見其父, 皆大歡喜, 拜跪問訊, 善安隱歸, 我等愚應, 誤服毒藥, 願見救療, 更賜壽命, 父見子等, 苦惱如是, 依諸經方, 溝好藥草, 色鄉美味悉具足, 擣飾和合, 與子令服 (중략) 其諸子中, 不失心者, 見此良藥, 色香俱好, 則便服之, 病盡餘念, 餘失心者, 見其父來, (중략) 我今當設方便, 令服此藥, 卽作是言, 汝等當知, 我今衰老, 死時已至, 是好良藥, 今留在此, 汝可取服, 勿憂不差, 作是教已, 復至他國, 遣使還告汝父已死, 是時諸子, 聞父背喪, 心大憂惱, (중략) 常懷悲感, 心遂酷悟, 乃至香美, 卽取服之, 毒病皆愈.

그 아래쪽 수미단의 계단 옆에는 운문으로 속에 그려진 높고 화려한 의자에 앉은 승려형의 인물과 상좌로 보이는 1구의 인물이 보인다. 이는 「安樂行品」중에 여래가 文殊舍利에게 이른 말로써 「여래 멸도 후, 말법 가운데 이 법을 설법하려면 安樂行에 머물러서 입으로 宣說하며, 혹은 경을 읽을 때 經典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또는 다른 법사를 가버이 여겨 빈정대거나 다른 사람의 좋고 그름을 말하지 말며, 성문의 이름을 들어 그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혹은 그들을 칭찬하지도 말며, 원망이나 혐의의 마음도 품지 말며, 보살이 항상 안락한 마음을 잘 닦으면 설법을 듣는 이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혹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말며 오직 대승의 법으로 해설하여 일체의 모든 지혜를 얻게 하라.」⁴⁹⁾라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또한 四安樂行은 安穩하지 않으려는 것을 즐기는 법이라고 설하고, 淸淨의 땅에서 상좌를 펴고 기름을 가지고 몸에 발라 塵穢를 澡浴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안과 밖을 함께 깨끗이 하고, 법좌에 安處해서 물음에 따르기 위한 설법을 해야 하는 초심의 보살들에게 末法の 세상에서 四安樂行을 사는 길은 「법화경」을 설 할 수밖에 없다는 佛의 가르침을 나타낸 내용⁵⁰⁾이기도 하다.

향좌의 하단에는 塔堂을 건립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특히 기와 얹기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지붕 위에는 2구의 인물이 기와를 옮기며 기와 얹기를 하고 있고, 1구의 인물은 아래서 줄에 달아 올려 보내는 흙을 끌어당기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흙덩어리를 위로 올려 보내는 인물과 계단 양옆으로 일을 하고 있는 2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고, 그 옆 향우로 삼으로 흙무더기를 퍼 올리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김홍도의 기와 얹기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分別別功德品」의 「젊음이 멸한 후에 이 경전을 듣고 받아서 스스로가 쓰든지 사람을 시켜서 쓰도록 한 바가 있으면, 그것은 승방을 세우고 赤梅檀을 가지고 여러 전당을 만드는 것이 되느니라.」⁵¹⁾라고 설한 장면을 그린 것이다.

49) 又文殊舍利,如來滅後,於末法中,欲說是經,應住安樂行,若口宣說,若讀經時,不樂說人及經典過,不輕慢諸餘法師,不說他人,好惡長短,於聲聞人,亦不稱名,說其過惡,亦不稱名讚歎其美.又亦不生死嫌之心.脩如是安樂心,故諸有聽者,不亦其意,有所難問,不以小乘法答,但以大乘,而爲解說,令得一體種智

50) 於淸淨地,而施床坐,以油塗身,澡欲塵穢,著新淨衣,內外俱淨,安處法座,隨問爲說.

나)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所藏本



이 사경변상화는 天倫寺本과는 아주 상이하다.

향우는 제4권과 동일하다.

향좌의 내용이 아주 독특하게도 위쪽에 「分別別功德品」의 내용을 그린 塔堂을 건립하는 장면을 그리고, 아래쪽에 「安樂行品」의 전륜왕의 明珠의 비유를 그리고 있다.

「分別別功德品」의 내용도 기와 엇기의 장면뿐만이 아니라, 망치질하는 인물, 흙을 깨는데 필요한 물지게를 나르는 인물, 2구의 인물이 나무를 켜는 모습 등 건축의 다양한 장면을 그리고 있으며, 「安樂行品」의 轉輪王의 明珠의 비유도 轉輪王이 드디어 明珠를 勇者에게 주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다.

「分別功德品」의 塔堂을 건립하는 장면이 향좌의 위쪽에다 「安樂行品」의 전륜왕의 明珠의 비유를 아래쪽에다 그린 이러한 구성은 「分別別功德品」의 내용을 「安樂行品」의 전륜왕의 明珠의 비유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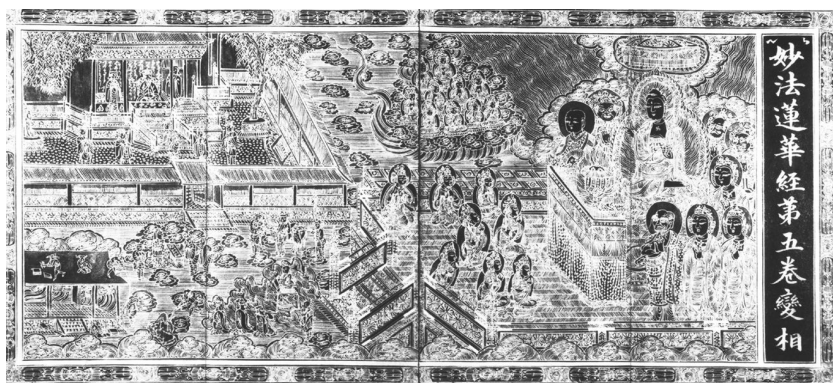
51) 若能持此經, 則如佛現在, 以牛頭梅檀, 起僧坊供養.

다) 忠惠王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所藏本



天倫寺本の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라)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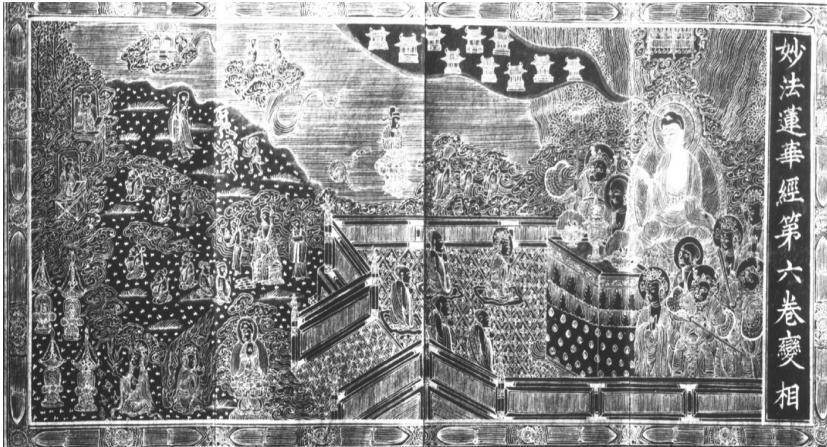
이 사경변상화도 천륜사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다만 「安樂行品」의 轉輪王이 明珠를 勇者에게 주는 장면이 天倫寺本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과 勇者가 막 明珠를 받으려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 계단 아래 侍者도 4구나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轉輪王의

明珠를 주는 장면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다짐, 말을 끄는 병사들이 「如來水量品」 중에서 良醫妙藥의 장면과 거의 같은 위치에 그려지게 되었다는 점이 天倫寺本과는 틀리는 점이라 할 수 있다.

(6) 제6권 변상화 내용

가)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松江 天倫寺 所藏本



향우의 설법도가 변화를 보인다. 「如來神力品」의 「온갖 중생들 앞에서 大神力を 나타내는 것이다. 廣長舌를 내어 위로는 梵世에 이르며, 일체의 毛孔으로부터 한량 없는 色光을 발해서十方세계를 비춘다.」⁵²⁾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석존의 육계로부터 발하는 광선 안에 10동의 가옥을 그리고 있다.

이 색광 아래쪽에 「隨喜功德品」의 「만약 여래 멸도 후, 사람들이 법화경에 관한 설법을 듣고 隨喜하고 법회에 나아가 승방에서거나 한적한 성읍 혹은 촌락 어느 곳에서거나 설법하고, 그들이 다시 隨喜하여 또 옮겨 설법하고, 이렇게 전전하여 제50 번째 선남자 여자에 이르면,(중략)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위하여 승방에 가

52) 一切衆生前, 現大神力, 出廣長舌, 上至梵世, 一切毛孔, 放於無量無數色光, 皆悉遍照十方世界.

서 앉거나, 서서 잠깐이라도 들으면, 象車 馬車를 타고 천궁에 오르리라.」⁵³⁾라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제2페이지 중간 수미단 위쪽으로부터 4페이지 위쪽까지 횡선의 바탕문 위에 관을 쓴 인물이 연화좌 위에 앉아 있고, 그를 향해 예불을 올리는 3구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맨 앞에 인물은 아주 높은 관모를 쓰고 있다. 또 연이어 천신으로 보이는 2구의 인물이 구름을 타고 있고, 그들 2구의 인물 向左에는 운문 위에 얹혀 허공에 떠있는 궁전이 그려지고 있다. 허공에 떠있는 궁전은 천궁에서 천인으로 태어남을 그린 것이고, 연화좌 위에 관을 쓴 사람과 합장을 하고 예를 올리는 인물들을 그린 것은 「隨喜功德品」의 내용에 나타나는 50번째 이른 설법자와 청취자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향우의 구석 위에는 「隨喜功德品」의 법화경을 듣고 수회해서 또 타인에게 설법하고 전전한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은 인물이 나란히 2구 그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앞에 책을 펴놓고 있으며, 그들을 향해 합장을 하고 예를 올리고 있는 청취자들은 斜格構圖로 그 아래쪽에 각각 3구씩 그리고 있다. 「법화경」설법하고 있는 위쪽에 그려진 인물은 僧侶形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 그려진 인물은 속인의 모습이다.

이들 설법자의 향우에는 「常不輕菩薩品」의 「常不輕菩薩은 경전을 읽지도 외우지도 아니하며 다만 예배만을 행했는데, 멀리서 四衆을 만나도 쫓아가서 예배하고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니, 그것은 그대들이 성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그를 어리석고 무지한 비구라고 욕하며, 어디서 와서 우리를 경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며, 수기까지 주려 하느냐고 몽둥이로 치거나 돌을 던졌다.」⁵⁴⁾는 내용으로 常不輕菩薩이 몸을 틀어 뒤돌아보며 도망가고 있고, 그

53) 如來滅後，若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及勵智者，若長葯幼問是經，隨喜已從法會出，至於餘處，若在僧坊，若空閑地，若城邑，巷陌・聚落・田里，如其所聞，爲父母宗親善友知識，隨力演說，是諸人等，問其隨喜，服行傳教，餘人聞已，亦隨喜傳教，如是傳教，至第五十，(중략)其五十善男子善女子，隨喜功德(중략) 若人爲是經，故往詣僧坊，若坐若立須臾聽受，緣是功德，轉身所生，得好上妙象馬車乘，珍寶輦輿，及乘天宮。

54) 而是比丘，不專讀誦經典，但行禮拜，乃至遠見四衆，亦服故往，禮拜讚歌，而作是言，不敢輕於汝等，汝等皆當作佛，四衆之中，有生瞋怒 以其常作是語，心不淨者惡口罵詈 是無智不構從何所來，自言我不經汝，而與我等受記 當得作佛，(중략) 汝當作佛，說是於時，衆人或以杖木尾石，而打擲之。(중략)

뒤를 따라 몽둥이를 든 인물이 2구, 돌을 든 인물 1구가 그를 쫓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법화경」의 행자에게 해를 가한 罪報와 『法華經』행자가 얻은 공덕을 설한 내용이다.

이들 옆 제3페이지 수미단 위쪽에는 「法師功德品」의 내용 중 「만약 善男子 善女子가 이 法華經을 受持하여 읽고 외우며, 새겨 설법하고 寫書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공덕을 얻을 것이니」⁵⁵⁾를 그린 것으로 한 노인이 원형의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양 옆으로는 남자가 1구씩 그려져 있는데, 이는 善男子 善女子가 공덕을 안고 간다는 것을 상징하여 그린 것이다. 두 팔에 선물 보따리 들고 있다. 노인 앞에도 2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고, 노인의 발아래에는 두루마리 전적이 4권 놓여 있는데, 이는 『법화경』을 寫經한 卷子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면 아래쪽에는 「藥王菩薩本事品」에서 설해지고 있는 약왕보살의 前身인 喜見菩薩의 燒身供養의 장면을 그린 것으로 화염에 싸인 보살 1구가 그려져 있고, 그 옆으로 소지공양의 장면을 그린 것으로 팔을 불사르고 있는 인물도 그려져 있다.⁵⁶⁾

그로부터 향좌에는 4기의 보탑이 그려져 있는데, 탑 안에는 각각 여래가 그려져 있다. 이는 「藥王菩薩本事品」에 「佛이 멸한 후에 보살은 사리를 모아서 팔만 사천 탑을 조립해서 공양했다」⁵⁷⁾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나)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本

향우의 설법도는 여래 뒤로 전각이 보인다.

향좌의 위쪽으로는 「隨喜功德品」 중의 내용으로 天倫寺本에서는 높은 의자에 앉은 승려와 속인이 그려진데, 비해 이 寫經變相畫에서는 속인은 생략되고 있는 점만이 틀릴 뿐 천륜사본과 거의 같다.

故增上慢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号之爲常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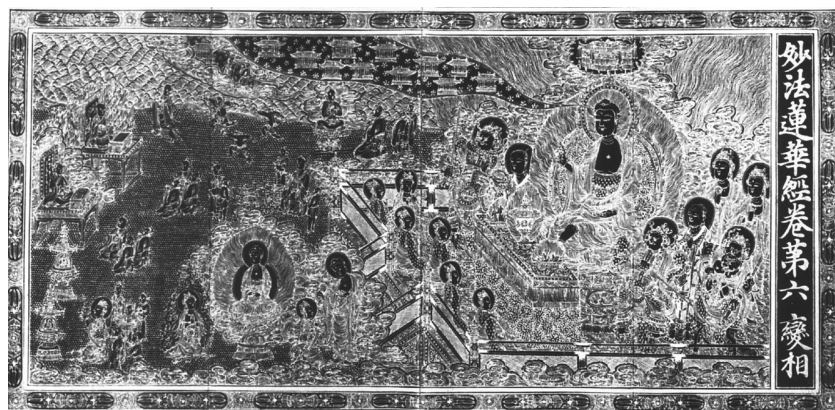
55) 若善男子善女子, 受持此經, 若讀・若誦・若解說・若書寫, 得千二百以功德

56) 滿千二百世已, 香油塗身, 於日月淨明得佛前, 以天寶衣, 而自纏身, 灌諸香油, 以神通力願, 而自然身光明, 遍照八十億恒河沙世界, (중략) 其身火然, 千二百歲, 過是已後, 其身乃盡.

57) 爾是一切衆生喜見菩薩, 見佛滅度, 悲感懊惱, 戀慕於佛, 卽以海此岸梅檀爲積, 供養佛身, 而以燒之, 火滅已後, 受取舍利, 作八萬四千寶瓶, 以起八萬四千塔,



다) 忠惠王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所藏本



이 사경 변상화는 「如來神力品」의 大神力を 나타내는 석존의 육계로부터 말하는 색광은 羽賀寺本の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분광된 아래쪽의 광명이 향우를 향해 가면서 둘로 갈라지고 있는데, 위쪽 운문 속에는 전각이 그려지고, 2구의 인물이 전각을 향해 서 있다. 이는 天倫寺本에서 광명 밑으로 그려지던 「隨喜功德品」중의 내용을 그린 천궁과 천인들을 영취산 속에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외 부분은 거의 天倫寺本을 따르고 있다.

라)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所藏本



이 사경 변상화는 「如來神力品」의 大神力を 나타내는 석존의 육계로부터 발하는 광선은 天倫寺本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鍋島家所藏本에서 분광된 아래쪽에 빛 속에 그려지던 전각과 2구의 인물은 제3 페이지 수미단 위쪽에 두 팔을 팔소매에 넣고 연화좌 위에 앉은 인물의 머리로부터 퍼져나간 빛에 의해 만들어진 구획 속에 그려져 있다. 그 외에도 「隨喜功德品」, 「常不輕菩薩品」, 「法師功德品」, 「藥王菩薩本師品」의 내용이 운문으로 장식된 구획 속에 그려지는 점과 天倫寺本에서 향우의 위쪽 구석에 그려진 「隨喜功德品」의 내용 중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던 2구의 설법자는 장식적 성격이 강한 운문 아래쪽에 그려져 있다. 그러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아니라는 점은 양식적 차이로 볼 수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天倫寺本과 거의 같다.

(7) 제7권 변상화 내용

가)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松江 天倫寺 所藏本

향우에는 석가 설법도에 석가의 육계로부터 발한 광선속에는 3동의 가옥과 산이 그려져 있다. 이는 「妙音菩薩品」의 내용으로 「대인상의 육계로부터 광명이 나오고



미간의 백호로부터 빛을 발해서 동방 백 팔 십만 억 那由他, 恒河의 모래와 똑같이 제불의 세계를 비춘다」⁵⁸⁾고 설한 내용을 그린 것이다.

수미단 위쪽에 「妙音菩薩品」의 「이미 멀도 하신 다보여래께서 七寶塔 중에 있으며, 불법을 듣고 물으러 오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제가 多寶佛을 친견코자하오니 원컨대 多寶佛을 친견케 해 주십시오」⁵⁹⁾라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다보불이 그려져 있는 보탑이 운문에 둘러싸여 있고, 보탑의 향우에는 보탑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는 妙音菩薩 그려져 있다.

보탑의 향좌에는 시자를 거느린 보현보살이 코끼리에 타고 탑을 향하고 있다. 이는 「普賢菩薩勸發品」에서 보현보살은 말세의 법화경을 수행한 자들을 수호함을 설법한다는 「普賢菩薩勸發品」의 내용 전체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보현보살 옆으로 觀世音菩薩이 산을 배경으로 하여 그려져 있는데 향좌를 향해 연화좌 위에 앉아 있다. 이는 여기서부터 「觀世音菩薩普門品」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세음보살의 향좌로부터 시작하여 그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觀世音菩薩普門品」의 7난구제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다.

58) 爾時釋迦牟尼佛，放大人相肉髻光明 及放眉間白毫相光，遍照東方百八萬億，那由他恒河沙等諸佛世界。

59) 久滅度多寶如來，在七寶塔中，來聽法，又問訊多寶如來，安隱少惱，堪忍久住不，世尊我今欲見多寶佛身，惟願世尊示我令見。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어려움에서 풀려 날 수 있다는 偈頌의 내용들이다.

맨 먼저 관세음보살 옆으로는 「구름과 천둥 일며, 번개 치고 큰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삼시간에 사라지며」⁶⁰⁾의 내용을 그리고 있다. 위쪽에는 雷神이 북을 치고 있고,⁶¹⁾ 그 아래쪽으로는 비가 쏟아져 우산을 받쳐 든 채,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걸어가는 인물이 1구 그려져 있다.

그 아래쪽으로 「만약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뿔뿔이 달아나며, 여러 가지 독사들의 독기가 불꽃과 같아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스스로 달아나며」⁶²⁾의 내용으로 1구의 인물이 뒤를 돌아보며 도망을 가고, 그 뒤를 독사와 호랑이와 전갈이 뒤쫓아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향좌에는 「혹은 도적에 둘러싸여 칼 들고 해치려 해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자비의 마음을 일게 하니」⁶³⁾칼을 든 인물이 1구가 그려져 있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아 빌고 있는 인물이 1구 그려져 있다. 그들의 발아래에는 짐 보따리가 놓여 있다.

그 아래쪽에는 「혹은 須彌峯에서 떨어진다 해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허공에 머무르게 되며, 혹은 악인의 피해를 입어 금강산에서 떨어진다 해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터럭하나 다치지 않으니」⁶⁴⁾라는 내용으로 단애 끝에 서 있는 인물이 그려지고, 그 아래 공중에 머문 형상을 동그라미 속에 몸을 오그리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 넣고 있다.

그 옆으로 「만일 큰 파도에 표류하여 용과 물고기의 귀신 난을 만난다 해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파도가 능히 삼킬 수 없으니」⁶⁵⁾의 내용으로 그 아래쪽 구석에

60) 雲雷鼓制手電, 降雨雹, 澍大雨, 念彼觀音力, 應時得消散

61) 『論衡』에서는 雷公은 바로 천둥의 상징으로 천둥의 모습을 그릴 때는 북을 연이은 모습으로 첩첩이 쌓아 놓고 雷公을 그렸다고 한다.

62) 若惡獸圍遶, 利牙爪可怖, 念彼觀音力, 疾走無邊, 虵蛇及蝮蝎, 氣毒烟火, 念彼觀音力, 尋聲自迴去.

63) 或值殘賊遶, 各執刀加害, 念彼觀音力, 咸即起慈悲.

64) 或在須彌峯, 爲人推墮, 念彼觀音力, 如日虛空住, 或被惡人, 墮落金剛山, 念彼觀音力, 不能損一毛.

는 높은 파도 위에 배가 뒤집힐 듯이 그려져 있다.

큰 파도의 표류도 옆으로 불길이 보이는데, 이것은 「큰 불구덩이에 떨어진 다 해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니」의 내용⁶⁶⁾을 상징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옆으로 「법에 걸려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칼이 조각조각 끊어지며, 감옥 속에 갇혀 손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음의 그 힘을 염송하면 그것들의 풀림을 받을 것이며」⁶⁷⁾이라는 내용으로 곤장을 든 사람과 심문하는 관리 사이에 형틀을 쓰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제3페이지 중간부분의 수미단 구석 옆에는 「妙莊嚴王本事品」의 두 아들이 바라문인 그의 아버지가 바라문법에 깊이 집착 해 있다는 어미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 위로부터 발끝에까지 물이나 불을 내는 신기한 변화를 보여서 어미와 함께 불교에 귀의케 했다⁶⁸⁾는 묘장엄왕의 두 아들 淨藏 淨眼왕자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두상으로부터 불을 뿜고 발로부터 물을 내는 1구의 인물과 머리로 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발로부터 불을 뿜는 1구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이들 발 아래쪽에 2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수미단을 향해 예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쪽의 淨藏 淨眼왕자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칼을 높이 받들고 꿇어앉은 妙莊嚴王과 그의 왕비인 淨德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점은 羽賀寺本에 이르면 더욱 명료하게 알 수 있다.

65) 或漂流居海, 龍魚諸鬼難, 念彼觀音力, 波浪不能沒.

66) 假使與害意, 推落大火坑, 念彼觀音力, 火坑變成池.

67) 或遭王難苦, 臨刑欲壽終, 念彼觀音力, 刀尋毀毀壞, 或囚禁枷鎖, 手足被杻械, 念彼觀音力, 釋然得解脫.

68) 彼佛法中, 有王名妙莊嚴, 其王夫人名淨德, 有一子淨藏・二名淨眼, 是二子有大神力福德智慧, 久脩菩薩所行之道, (중략) 爾是彼佛, 欲引妙莊嚴王 及愍念衆生, 古說是法華經, 時淨藏・淨眼二子, (중략) 母告子言, 汝父信受外道, 深著婆羅門法, (중략) 母告子言, 汝等當憂念汝父, 爲現身變, 若得見子, 心必清淨, 或我等往至佛所, 於是二子念其父, 故涌在虛空高七多羅樹, 現種種神變, 於虛空中, 行住坐臥, 身上出水・身下出火, 身下出水・身上出火.

나)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所藏本



향우의 설법도는 전각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으며, 석가의 계주로부터 발한 광선이 제2페이지 중간까지 뻗어 있으나, 색광 속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있어 천륜사본과는 틀리려지고 있다.

화면의 중앙자리에 수미단 위쪽에는 보탑이 그려져 있으며, 이 보탑의 향우에는 측면 향의 묘음보살이 그려지고, 보탑 위쪽의 운문에 쌓인 코끼리를 탄 普賢菩薩이 시자를 거느리고 있는 점은 천륜사본과 거의 같은 모티브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보현보살 바로 옆으로 「觀世音菩薩普門品」의 7난구제의 장면이 시작되고 있으나, 觀世音菩薩은 보이지 않는다. 7난구제의 배치에 있어서도 天倫寺本과는 틀린다.

먼저 보현보살 옆으로 산이 그려지는 가운데 뇌신이 위쪽에 그려지고, 그 뇌신이 내리는 폭우에 우산을 쓰고 몸을 못 가누며 걸어가는 인물은 천륜사본과 같다.

그러나 맨 위쪽 상단 구석에 단애 끝에 서 있는 인물이 그려지고 있어, 이미 배치가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애 끝에 선 인물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아래 쪽에다 동그라미 속에 인물을 그려 넣은 점은 천륜사본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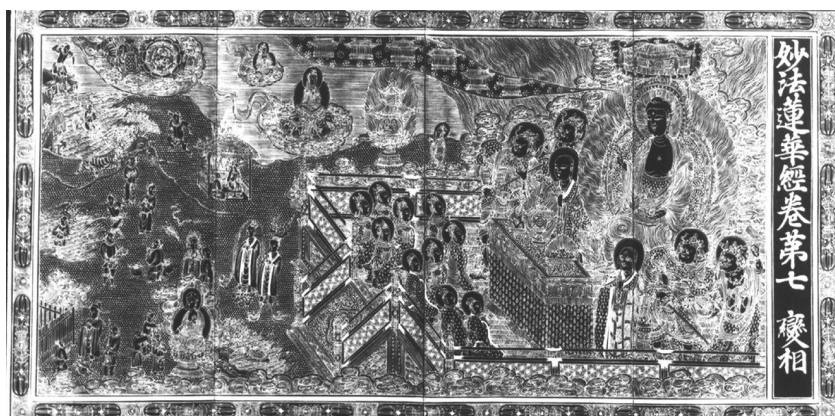
그 아래 단애는 향좌로부터 호랑이가 그려지고, 그 뒤에 1구의 인물이 그려지고 있으며, 그 옆으로 또 1구의 인물이 그려지는데, 그 앞에 독사가 그려져 있어 맹수

와 독사의 재난을 그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우에는 도적의 재난이 그려져 있다.

그 다음 단에서는 와가에 불이 난 것을 끄고 있는 1구의 인물이 그려지고, 그 옆으로는 사람을 눕힌 들것이 그려져 있어 불의 재난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의 재난은 천륜사본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는 형틀을 쓴 인물과 이를 취조하는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그 옆으로 관청임을 상징하는 건물이 그려져 있다.

아래쪽 향우의 끝단에는 머리로부터 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발아래 불을 뿜는 인물과 머리로는 불을 뿜고 다리로는 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淨藏 淨眼의 2구의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 이들 2구의 인물을 향해 칼을 든 인물과 천왕의 모습으로 그려진 인물이 앞뒤로 나란히 그려져 있다는 점은 天倫寺本과는 틀린다.

다) 忠惠王 復位元년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所藏本



향우의 설법도의 석가의 계주로부터 발한 광선과 수미단 위쪽에는 보탑이 그려진다. 보탑의 향우에는 측면향의 묘음보살이 탑을 향해 앉아 있는 점, 보탑 향좌 위쪽에 시자를 거느리고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그려진 점, 普賢菩薩 향좌에 산을 배경으로 觀世音菩薩이 그려진 점, 그리고 그 옆으로 뇌신이 그려진 것까지 상단부

분은 거의가 天倫寺本과 같은 모티브로 그려지고 있다. 다만 계주로부터 발한 광선이 제3페이지 중간까지 뻗어 있고 7동의 집이 그려진 점이라든지 집과 집 사이의 여백에 산화가 그려진 점등은 天倫寺本과는 틀리는 점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은 양식적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상단 향좌의 맨 구석 단애에 1구의 인물이 서 있는 것은 羽賀寺本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아래쪽으로 호랑이가 뒤돌아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앞으로 1구의 인물이 그려져 맹수의 재난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羽賀寺本의 배치 순서에 따르고 있다.

그 옆으로는 이 鍋島家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으로 초옥에 남녀가 茶床을 앞에 놓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觀世音菩薩普門品』에서 설해지는 내용으로 아들, 딸을 얻기 원할 때는 觀世音菩薩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라는 내용⁶⁹⁾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단애는 수재의 재난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 1구의 인물 앞에 뱀이 기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위의 호랑이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아래쪽으로 도적의 재난이 그려져 있으며, 그 옆으로는 『妙藏音王本事品』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 맨 하단의 구석에는 목책이 그려지고, 그 옆으로 형벌의 재난이 그려지고 있어, 목책은 감옥의 상징으로 그려 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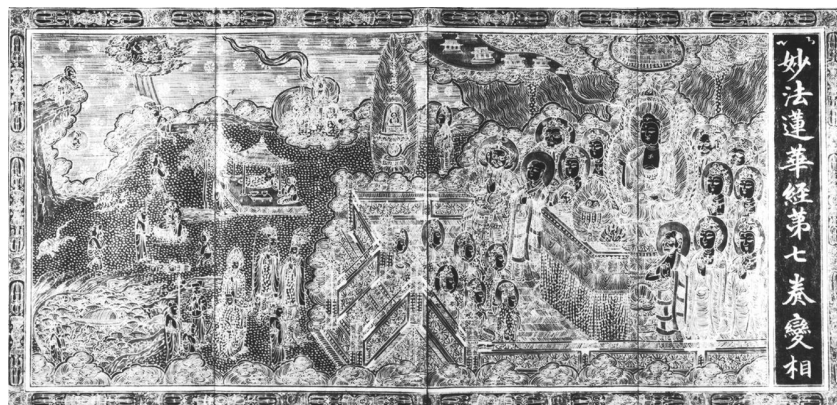
그 옆으로는 관세음보살과 3구의 인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재난에서 구제된 인물들이 관세음보살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관세음보살 뒤편에는 큰 바다에 배가 표류하게 되었을 때의 재난을 그린 것이다.

이와 같이 鍋島家本은 7난구제의 각 장면의 배치가 忠肅王代의 작품들과는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9) 若有女人，說欲求男，禮拜供養觀世音菩薩，便生福德智慧之男，設欲求女，便生端正有相之녀，宿植德本，衆人愛敬。

라)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所藏本



향우 설법도나 향좌의 각 장면이 天倫寺本과 거의 같다. 다만 鍋島家本에서 초옥에 남녀가 차상을 앞에 놓고 있는데 비해, 여기에서는 여인이 이불을 덮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하려는 순간을 그린 것으로 보이며, 그의 남편이 나무아래서서 누워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으며, 시녀인 듯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이는 아들, 딸을 얻기를 기원하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4절의 『妙法蓮華經』7권본 1부의 내용을 분석 해 본 결과 첫째 향우의 내용은 각권에 따라 조금씩 그림의 내용이 틀리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설법도의 틀 속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둘째 향좌의 내용은 아주 복잡하게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권에 수록된 各品の 내용 중에서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가장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설화적 내용을 선택하여 그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설화적 내용이 아닐 경우도 「法師功德品」, 「隨喜功德品」, 「見寶塔品」의

계승 중 마른 섶을 걸머지고 불로 뛰어 드는 비유와 같이 『妙法蓮華經』의 광선유포가 얼마나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교훈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妙法蓮華經』 7권의 各品の 내용을 그리는데도 중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더 크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輕重도 시대에 따라 틀린다는 점도 파악 할 수 있었다.

< 參 考 文 獻 >

『法華經』.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譯註 法華經 諺解 권1~권7』.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1986.

K C I